KÓKKOS

2020 OCT
VOL. 223
10

이경민 (컴소 4) 학우가 대학생들로부터 ' 꿈의 직장 ' 으로 불리는 카카오 취업에 성공했다 . 재학 중 2018 년 총장배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팀원과 개발한 ' 성서봇 ' 이 크게 도움 되었다면서 ... 취업 경험기 관련기사 7 면으로 .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www.bible.ac.kr
발 행 인 _ **강우정**
편집주간 _ **이강동**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TEL _ **02-950-5401**

학교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총장의 권면

총장 강우정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3 주기) 평가가 다가왔습니다. 실제 평가는 2021 년 5 월 ~7 월에 실시되고 결과가 8 월에 발표됩니다. 이 평가에서 우리대학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선정되면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고 대학 지원자나 일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지만 선정되지 않으면 학교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 우리대학은 2018 년 제 2 주기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어 3 년 동안 매년 14 억씩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평가 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평가를 직접 준비하는 분들이나, 직접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나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앞으로 6 개월 동안 (2020 년 11 월 ~ 2021 년 4 월까지) 학우들의 휴학, 교직원 선생님들의 휴가, 교수님들의 연구년을 임시 중단하는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권면 합니다.**

각 개인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불편이 있더라도 학교의 위기 극복을 위해 2021 년 4 월까지만 인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21 년 4 월을 제시한 이유는 이번 평가가 2018, 2019, 2020 학년도의 실적을 보기 때문이며, 최종보고서 제출이 2021 년 4 월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진단지표중 비중이 가장 높은 지표가 **학생 충원율**입니다. 100 점 만점에 20 점으로 1/5 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학생 충원율**은 학우들의 의지와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휴학은 최소화, 복학은 최대화 해야 합니다. 학교는 앞으로 총학, 각 학회장, 과대표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2021 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진실하게 드러내 놓고 평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대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0 년 10 월 7 일

미니설교

조현진 교수(성서학과)

기드온의 칼 (삿 7 장 9 ~ 23)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사용한 무기를 보면 우리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팔과 횃불이 든 빈항아리를 가지고 적군에게 나아갑니다. 나팔이나 빈항아리는 상식적으로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던 도구와 방법으로 전쟁을 직접 수행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오늘의 우리도 인생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고자 거짓말이나 권모술수를 유용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군병들은 그러한 세상의 무기를 부러워해서도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소중한 무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Bible)과 능력(Power)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비열한 무기들로 열세인 것 같지만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기억,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때로는 기다리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 특별장학금」 179 명에 5 천 4 백만 지급

김조자 교수 1 천만 원 등 후원금 넘쳐 제 2 차 지원자 모집

우리대학은 지난 9 월 28 일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재학생들에게 「코로나 19 특별장학금」으로 1 인당 30 만원씩 179 명 (학부 150 명 , 대학원 29 명) 에게 지급하였다 . 지급액은 목표 모금액 4 천 500 만원을 훌쩍 넘는 5 천 370 만원이다 . 후원은 마감 후에도 이어지면서 10 월 5 일 현재 6 천 700 여 만 원을 기록 , 제 2 차 지원자 모집으로 확대되고 있다 . 하나님은 「코로나 19 특별장학금」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

전국의 많은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반환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우리대학 총학도 이 문제로 학교의 입장을 여러 번 문의해 왔다 . 강규성 부총장과 보직자들도 총학과 여러 차례 (6 월 , 8 월) 모임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 학교 재정난이 심각하지만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학부모의 실직 , 자영업 불황 등 어려운 상황의 학우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고 「코로나 19 특별장학금」지급을 결정하였다 .

대책도 없이 시작한 「코로나 19 특별장학금」사업 추진은 보통 경우와 정 반대로 모든 일을 거꾸로 해 나갔다 . 재원은 학교 여유 자금이 없어서 전액 외부 후원금 모금으로 정했고 , 모금 목표액 , 1 인당 지급액 , 지급 인원 등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 모여 기도하면서 먼저 한 일은 지원 대상자 모집이다 . 마감 날까지 150 여명이 지원 , 담당자들도 '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 지급액은 1 인당 30 만원과 모금 목표액은 4 천 5 백만 원으로 정했다 .

전주서부중앙교회 노재석 (3 백만 원) 목사가 첫 번째로 후원하며 모금의 물꼬를 텄다 . 기도에 함께 참여한 교수들도 1 백만 ~ 3 백만 원까지 후원하였고 간호학과 명예교수인 김조자 교수가 1 천만 원을 쾌척 , 목표액에 성큼 다가섰다 .

도움은 뜻하지 않게 머나먼 미국의 한 교회에서도 연락이 왔다 . 미국 버지니아 지역의 열린문장로교회 (담임 김용훈 목사) 의 교인 3 명이 1 만 달러 (원화 1 천 1 백여 만 원) 를 보내온 것이다 . 김 목사는 지난 2004 년 FT 강사로 우리 대학에 왔으며 그는 김병원 목사 (7 회 , 전 명예교수 , 전 고신대 총장) 의 사위이다 .

「코로나 19 특별장학금」에는 5 만원에서 1 천만 원까지 총 64 명이 후원금을 보내 주었다 . 교내에서는 교수 20 명 , 교직원 13 명 모두 33 명이 3 천 8 백만원을 후원했다 . 이들은 모두 이름을 밝히지 않기를 원했다 .

후원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 천만 원 이상 : 열린문장로교회
500 만 원 ~ 999 만 원 : 서울광염교회
100 만 원 ~ 499 만 원 : 전주서부중앙교회 , 상계 5 동보듬이나눔이 , 청평교회 , 중앙성서교회 , 길용희 , 차인숙 , 황연호 (평화교회), 김인화 , 김원선 , 서해원 , 이성화 (서문교회)
50 만 원 ~ 99 만 원 : 지구촌교회 , 전명진 , 동서환경 (주), 목민선교회 , 예수마을교회 , 반종원 , 권정아
10 만 원 ~ 49 만 원 : 늘사랑어린이집 , 황예영 , 김영숙 , 이윤성 (서부제일교회), 정인철 , 성낙표 , 상계백병원어린이집 , 김신덕 , 최경환 , 이인경 , 무명

장애대학생 실태평가 '최우수' 등급 기대

교육부 , 자체평가 결과 수용 현장방문 생략 통보

교육부는 우리대학의 장애대학생 복지지원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2 차 현장방문 (10 월 12 일) 평가를 생략한다는 내용을 지난 10 월 6 일 보내왔다 . 현장방문평가 생략은 자체평가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자체평가 점수는 91.55 점 (100 점 만점) 으로 ' 최우수 ' 등급에 해당한다 . 최종발표는 11 월 16 일에 있다 .

우리대학은 2005 년부터 시작된 3 년 주기의 실태평가에서 2005 년 첫 해만 ' 우수대학 ' 평가를 받았고 그 후 4 회 연속 (2008, 11, 14, 17 년) ' 최우수 대학 ' 타이틀을 보유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선도대학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

"구성원의 단합이 최고의 보고서를 만든다"

배영길 교수,
「2021 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설명회

▲ 학사 제도 개선 방향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배영길 교수

교육부의 3 주기 「2021 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준비를 위한 설명회가 21 일 10 시부터 일립관 101 호에서 진행되었다. 설명회에는 우리 대학의 역량진단 평가 자문역을 맡고 있는 배영길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교수) 컨설턴트가 주재하였으며 집필위원 및 실무위원, 학과장 등 32 명이 자리하였다.

오전에는 진단평가의 전체적인 개관으로 평가의 주안점이 무엇인지 배영길 교수의 관점과 해석을 이어갔다. 배 교수는 평가보고서의 품질은 작업 process 에 달려 있으며 이는 위원들이 최고의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공동의 지향점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증빙자료 수준이 중요한데 결국 구성원이 얼마나 단합하였는가의 문제이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대학 역량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3 주기 평가 일정과 선정방식, 주요 진단 안내를 비롯하여 관련된 지표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3 주기는 계획과 실적 평가의 2 주기와 달리 성과 및 환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대학의 NSLB 교육 기반 등 여러 장점을 평가와 접목시키는 디테일한 과정과 시각의 변화도 강조하였다.

오후에는 각 평가항목별 문제의 요점 정리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평가비중이 높은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교육 성과', '교육 여건' 등 주요 진단 항목의 핵심을 꿰뚫는 비교 분석도 가졌다. 집필위원 및 실무위원과 종합 토론이 이어졌고 실행 가능한 취약점은 신속 보완해 최상의 평가에 대비할 것을 참석자들은 다짐하였다.

3 주기 진단은 2 주기와 다르게 1, 2 단계가 통합되었고, 전임교원 확보율과 학생 충원률 등의 정량지표 배점이 2 주기에 비해 높아졌다. 평가보고서는 내년 2 월 12 일까지 작성을 마쳐야 한다.

3 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집필위원과 실무위원은 다음과 같다.

◈집필위원 : ▲강규성 ▲조윤경 ▲유정선 ▲김중완 ▲권경만 ▲최은희 ▲김정원 (성서) ▲이성아 ▲안정선 ▲임지영 ▲오은주 ▲장인순 ▲정해덕 ▲강정원 ▲정휘진 ▲박성범 이상 16 명

◈실무위원 : ▲정휘진 ▲김현동 ▲유미나 ▲신금주 ▲권순범 ▲문지예 ▲유다운 ▲임수아 ▲김 희 ▲김지성 이상 10 명

군복무 기간에 학점 취득
한 학기당 3 학점
군 생활에 활력소 작용

군복무기간 중에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학점취득은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에 접속, 서울권역 e- 러닝 (한양대학교) 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학점은 학기당 3 학점, 연간 6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고 졸업 시 까지 전체 24 학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군 복무 기간 중 수강료는 1 학점 당 87,000 원이지만 50% 를 장학금으로 지원해 줘 부담은 적다. 현재 나라사랑포털에서 개설된 강좌는 정보사회학입문 (배분이수 3 영역 대체) 이 운영 중인데 과목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1 월 전역 예정인 현역의 안민호 (간호 2) 학우는 " 지난 1 학기 3 학점을 취득했는데 어렵지 않았다. 복무 중 학점을 챙기다보니 곧 이어질 학교생활과 복학 준비에도 정신적인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군복무중 학점취득에 관한 문의는 교학팀 950-5407(김희)

코로나 덤벼라 ! 우리가 간다
전교생 전교수 간 「코로나 1:1 대면 면담」

위축된 학습의욕 위로와 용기 심어줘

2020 년도 2 학기 개강에 맞춰 모든 교수들 (책임지도 교수) 이 「코로나 1:1 대면 면담」 이름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학우들과 1:1 격려 면담을 갖고 있다 . 지식의 전수만을 위해서라면 비대면 영상 수업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 학생의 전인적인 이해와 지도를 위해서는 대면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계획 되었다 . 1:1 면담을 통해 학우들의 위축된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고 , 애로도 듣고 , 학업 및 진로 문제까지도 상담을 하고 있다 .

면담은 담당 교수가 학우를 초청하고 , 교수실 혹은 식당 등 제 3 의 장소에서 만나 1 시간 ~2 시간 동안 기도와 소통 시간을 갖는 형식이다 . 이미 시작한 몇몇 교수들은 학우들이 예기치 않은 면담 요청 , 혹은 점심 초대에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코로나 1:1 대면 면담」 에서는 수업 적응과 학습 환경 및 향후 진로 , 신앙생활 그리고 학년에 따라 졸업시험 통과 여부까지 점검하면서 사제간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갖게 된다 .

강우정 총장은 「코로나 1:1 대면 면담」 에 대해 지극히 한국성서대학다운 노력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 19 의 엄중한 테두리 안에서도 우리가 수행해야할 일 , 즉 가르치고 배우는 일과 코칭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고도로 추구하는 것이 코로나 19 를 극복하고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

김지현 (성서 1) 학우는 2 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진행돼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였는데 박태수 (성서) 교수와 전화 면담을 가졌다며 고무된 표정을 지었다 . 신입생인 그는 " 지난 밀알훈련 때도 교수님이 상세히 안내해 줘서 두려움을 떨치고 잘 마쳤다 . 신입생 처지에서 자신의 대학 4 년을 이끌어 줄 든든한 응원군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 며 성서공동체로서 자긍심을 나타냈다 .

「코로나 1:1 대면 면담」 프로젝트는 사실 우리 대학이 운영 중인 책임지도교수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 이 제도는 한 교수가 재학생의 입학 후 졸업까지 학교생활 전반은 물론 신앙생활 등을 안내 및 견인하는 책임을 지게 되며 졸업 이후에도 A/S 차원에서 이러한 관계가 평생 지속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

간호학과
전면 대면수업 폭풍질주

개강 5 주째부터 , 학우들 적극 반겨

▲ 대면수업 강의 현장

간호학과 전 학년이 개강 5 주째부터 전공과목을 전면 대면수업으로 돌입하였다 . 수업은 감염병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 , 2~3 회 체온 확인 , 강의실 내 환기와 소독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다 .

2 학기 첫 4 주간을 비대면으로 임했던 간호학과 학우들은 대면수업 전환을 적극 반겼다 . 모든 수업은 연강으로 진행됐는데 강의실 풍경은 학년별로 달랐다 . 4 학년은 다가올 국가고시에 대비해 자율학습을 병행하였고 3 학년은 10 월 한 달간 임상에 참여하고 있었다 . 전체 수업의 70% 가 실습과목인 2 학년들은 탐구심이 가득하였고 1 학년은 전공수업에 점차 흥미를 나타내며 적응하고 있었다 .

간호학과 학우들은 대면수업의 장점에 대해 생동감 있는 학습 열기를 최고로 꼽았다 . 이론과 실습 그리고 임상까지 유기적으로 접목되어야 하는 과목 특성상 강의실이라는 환경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이밖에 동기와 선후배간 유대강화와 학과에 대한 자긍심 등도 대면 수업이 주는 큰 자산이라고 강조하였다 .

고미숙 학과장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조직내 숙달된 협력 네트워크가 갖춰질 때 효율적이다 . 이와 같은 인성적 , 지성적 발전은 대면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믿는다고 말했다 .

2021 학년도 수시입시 5.48:1

간호학과 KBU 인재전형 16.60:1

우리대학의 2021 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5.48:1 로 최종 마감되었다. 207 명 모집에 1135 명이 지원했으며 이는 전년도 수시경쟁률 6.8:1 과 비교해 다소 하락하였다.

학과별 정원내 경쟁률은 11.56:1 의 간호학과가 제일 높다. 34 명 모집에 393 명이 지원하였고 그중 KBU 인재전형이 16.60:1 로 가장 치열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학과 6.65:1, 영유아보육학과 5.51:1 을 나타냈다. 뒤이어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5.17:1 의 순이었고 성서학과가 1.58:1 을 보여줬다.

이번 2021 년도 수시입시경쟁률에 대해 신지수 입학관리팀장은 " 코로나 19 로 학교 홍보루트가 거의 해체된 상태다 보니 기간 내내 가슴을 졸였다.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건 아쉽지만 이 또한 감사하다. 모든 교직원의 기도와 성서공동체 가족들 응원 덕분이다 " 라며 감사함을 나타냈다.

면접은 오는 10 월 21~22 일에 있으며 하며 합격자는 11 월 6 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일립관 B101 호 , 확 바뀌다

종합강의실 등 안락 , 쾌적

▲ 산뜻하게 단장된 일립관 101 호에서 설명회가 진행중이다.

일립관 B101 호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돼 학우들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실환경개선으로 진행된 이번 리모델링은 B101 호실 (279 ㎡ , 84 평) 과 주변시설 (165 ㎡ , 50 평) 로 이뤄졌는데 종합강의실 , 개인 및 설교실습실 , 신체활동실과 교재교구실이 각각 자리하고 있다.

종합강의실 내부 인테리어는 베이지색 계열 흡음재로 꾸며져 차분함과 안정감이 깊다. 천장 닥트시설과 배관은 트렌드에 맞게 노출 , 공간감이 높아졌고 날렵한 일자형태의 LED 전구가 책걸상 따라 최적의 빛을 전한다. 전체 150 명 수용이 가능하며 뒷좌석 3 개열은 단차를 두어 시선까지 배려하였다. 중앙무대 좌우 코너면으로 1 인 설교실습과 교재 교구실이 자리하고 있다. 전면의 와이드형 칠판 , 스크린 , 최신형 프로젝트와 원기둥 근처의 시야확보용 모니터 2 대가 설치돼 역할을 잘 한다. 오디오는 물론 방송실까지 구비돼 중규모 회의 진행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꾸며져 있다.

엘리베이터 출입구와 연결된 로비공간은 적색 파벽돌과 좌우면 회백색 브록이 마치 도시형 카페공간을 연상케 한다. 큼지막한 학교로고에 핀조명이 더해지면 포토존 공간으로도 안성맞춤이다. B102 호 좌측면은 공간을 분리 , 소규모 설교실습실과 신체활동실이 꾸며져 있다. 책걸상과 정수기 , 냉장고 및 탕비실까지 비치돼 소규모 모임 장소로 활용 가능하다.

일립관은 지난 1998 년 준공돼 23 년째를 맞고 있다. 리모델링은 삼경비오티 (대표 박흠이) 가 담당했으며 소요된 전체 공사비는 약 3 억여 원에 달한다.

영어졸업고사 67% 합격

기초교육원 (원장 이한영) 이 주관하는 2020 학년도 2 학기 영어졸업고사가 26 일 복음관 5 곳의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졸업고사에는 107 명이 지원자 중에 101 명이 응시했으며 최종 67 명 (67%) 이 합격권에 안착했다. 지난 1 학기 합격률 25% 와 비교해 2.5 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번 졸업고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지침에 따라 복음관 (2) 갈멜관 (1) 강의실에서 분산 실시됐다. 재학 중 마지막 시험에 임한 4 학년 17 명의 응시자 중에서는 12 명이 합격하였다.

' 꿈의 직장 '
카카오 취업 경험기 (記)

이경민 (컴소) 학우 ,
"재학 중 ' 성소봇 ' 을 개발하고 2 년간 운영한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됐다"

2020 년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전국의 대학생 1616 명에게 시가총액 상위 100 개 기업 대상으로 취업 선호 조사 (7 월 14 일) 를 하였는데 카카오가 1 위를 차지하였다 . 2 위 네이버 , 3 위 CJ 제일제당이었고 4 위 삼성전자 5 위가 한국전력공사 순이다 .

이경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4) 학우가 ' 꿈의 직장 ' 으로 불리는 카카오 입사에 성공했다 . 경쟁자는 5 년 이상 경력자 등 70 명이었고 그 중 단 1 명만 합격이었다 . 그의 취업 과정 경험을 들어 본다 .

▲ 카카오 지원 계기는 ?

– IT 업계에 ' 네카라 ' 말이 존재한다 .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 네이버 ', ' 카카오 ', ' 라인 ' 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다 . 취업지를 선택할 시점에 알아본 곳도 카카오와 네이버였다 . 내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 카카오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

▲ 채용 과정은 어떻게 진행 되었나 ?

–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 코딩테스트 , 인성검사 , 1 차 면접 및 2 차 면접 순이다 . 코딩테스트는 알고리즘과 자료구조 능력 테스트이며 제한된 시간 안에 제약 조건을 준수하는 솔루션을 코드로 작성해야 한다 . 출제된 5 문제 중 일부는 영어다 . 면접은 세 명의 면접관과 한 시간 동안 진행되며 쉼 없는 질문이 이어진다 . 면접 통과는 만장일치제로 한 명이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탈락이다 .

들은 바로는 1 명 뽑는 자리에 70 여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신입지원자는 나 하나뿐이었다 . 내가 지원한 곳은 5 년 이상된 경력자를 채용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 다행히 코딩 테스트에 내가 작성한 코드를 실무진이 눈여겨 봐서 면접까지 진출하게 됐다 . 면접도 중간 중간에 칭찬을 받을 정도로 잘 치렀다 . 그 영향 때문인지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아 채용될 수 있었다 .

▲ 면접관들은 어떤 역량을 눈 여겨 봤는가 ?

면접관들은 꼬리물기식 질문으로 면접자의 깊이를 측정한다 . 나는 운 좋게도 1 차와 2 차 면접에서 대답을 못한 질문이 거의 없었다 . 또한 재학 중 ' 성서봇 ' 을 개발하고 2 년간 운영한 경험도 크게 도움이 됐다 . (이경민 학우는 2018 년 ' 총장배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 에서 3 명과 팀을 이뤄 ' 성서봇 ' 으로 대상 수상) 2 년의 운영 기간 중 팀원 간의 이견을 조정한 노력 , 기능 확장을 위해 학교 관계자를 설득한 경험 ,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극복한 경험들을 면접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줬다 .

▲ 특별히 취업에 도움이 된 분야가 있다면 ?

대부분의 전공과목이 도움이 된다 . 모든 기술에는 CS(Computer Science) 의 기본 원리가 녹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운영체제 , 자료구조 , 네트워크 , 컴퓨터구조와 같은 전공과목의 심층적 학습이 중요하다 .

▲ 후배들을 위한 조언은 ?

우리 전공은 뻗어 나갈 수 있는 갈래가 무수히 많다 . 그래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나는 학교 수업만 따라가지 않고 백엔드 , 프론트엔드 , 머신러닝 , AI, 블록체인 , 보안 등 많은 분야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했고 , 대학원 연구생활이 궁금해 GIST(광주과학기술원) 에서 학부연구생으로 참여한 적도 있다 . 그 과정에서 가장 잘 맞는 분야가 백엔드 개발 분야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 방향 설정 후 즐기면서 오래 달리다보면 전문성은 자연스레 갖춰지게 된다 . 핵심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세부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다 .

성서대학살리기『KBU 2020 캠페인』(누계 238,731,599원 2020. 2. 1~2020. 9.30)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4,080,000원)

성서대학어린이집	2,000,000	안민혜(재학생 및 가족)	50,000
장현진(교직원 및 가족)	1,500,000	김주연(동문 및 가족)	30,000
정해덕(교직원 및 가족)	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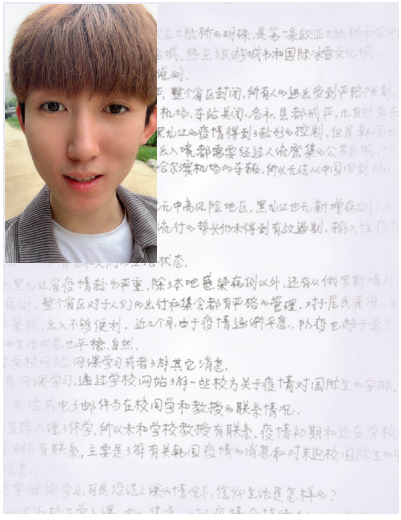
약정 후원자 (합계 39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4,680,000원)

동문 및 가족	배효순 연현숙 정명갑	6구좌 장홍림	2구좌 김성호 김은영 이호섭
5구좌 유양숙	정은희 최성자	5구좌 이복남	1구좌 구자람 김덕원 문지예
1구좌 강은혜 김진숙 문정혜	**교직원 및 가족**	3구좌 오진숙	민경은 임환석 홍성진

합계 8,760,000원 (일반후원 + 약정후원) 『KBU 2020캠페인』 목표금액 5억원 (47.7% 달성)

흑룡강에서 보내온 편지
"나는 KBU 로 돌아가고 싶어요 !"

임유 학우 (성서학과 3 학년)



▲ 임유 학우가 중국어로 쓴 손편지

성서학과 3 학년 임유 학우가 지난 겨울방학 때 중국 흑룡강성 집에 들렀다가 코로나 19 로 공항이 폐쇄되면서 의도치 않게 휴학생이 된 사연을 보내왔다. 공부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전하고 싶어 펜을 들었다고 한다.

"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지 ? 가끔 흑룡강성에 있는 집에서 내 자신에게 되묻곤 합니다. 코로나 19 만 아니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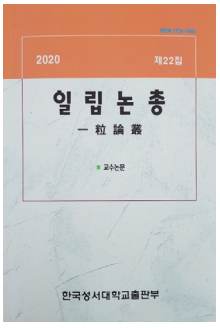
성서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내 속마음은 솔직히 초조합니다. 나만 학업에서 낙오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 나름 학생 신분을 유지하려 하고 있어요. 주변에 학교 선배가 2 명 있는데 거리가 멀어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휴학생 신분이다 보니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현재는 학생 신분이었던 때가 정말 부럽습니다. 내년 학기에 등록해서 남은 과정을 잘 마치고 싶어요. 복학하면 정말 미치도록 공부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하게 됐어요. 내가 많이 부족한 걸 깨달았습니다. 신앙심은 말할 것도 없고 학습력도 약했고 특히 한국어 숙달을 우선 순위에 두고 싶습니다. 그동안 배운 말들도 까먹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하루 빨리 종식돼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되기만을 바랍니다.

지난 1 월 초순 우한발 코로나가 여기 흑룡강성에 급격히 전파되면서 사태가 심각해 졌습니다. 성 전체에 사람 간 이동을 엄격히 금했고 공항과 터미널이 폐쇄되었습니다. 주요 요소마다 검문검색은 물론 출입증 없으면 외곽에 나가지도 못했지요. 외부인이 경계선을 들어오면 강제로 2 주간 자가 격리에 처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살벌한 분위기였지요. 2 월 하순쯤 진정됐지만 반대로 한국이 심각해지면서 지금까지 와 버렸지요. 현재 이곳은 치료중인 확진환자, 무증상 감염자를 제외하면 대체로 평온한 편입니다. 하지만 완전 종식은 아니어서 코로나와 장기전을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예전 일상이 정말로 그립습니다. 나 KBU 로 돌아가고 싶어요 …

일립논총 제 22 집 발간



일립논총 제 22 집이 출간되었다. 김정원 (성서) 교수 등 3 개학과 5 명의 연구논문이 수록되었다. 이번 연구는 각자의 전공과 시각 및 주제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 섬김 ' 의 맥락을 통해 주권자인 주님의 위대함을 담아내고 있다.

일립논총 제 22 집 연구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다.

▲ 김정원 (성서) ' 시편 137 편의 문학구조 및 삶의 자리 '
▲ 김성경 (사복) ' 한국성서대 역량기반 A.I.Navi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모델 연구 '
▲ 김정원 (영보) ' 대학생의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 조윤경 (영보) ' 실습을 경험한 예비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통합보육 실행에 대한 인식 '
▲ 김성호 (사복) ' 지역사회 돌봄욕구에 대한 질적 연구 – 노원구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https://www.pinterest.co.kr/pin/355784439287428926/

그 은혜가 있기에

처음 이 그림 앞에 서 있을 때 생각난 분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머리에 모자는 쓰지 않았지만 고된 하루를 보내고 탁자에 몸을 기대 있는 모습이 아내와 오형제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 낸 아비와 같았습니다. 이 그림을 40 대 초반에 봤으니까 벌써 20 년이 넘었습니다. 그림은 생각나는데 화가의 이름을 몰라서 이 그림을 소유한 필라델피아 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갖 그림을 다 본 끝에 찾은 겁니다.

"너도 살아봐라 어디 쉬운 게 있나? 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거다." 제 엄마가 가르친 교훈은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셨던 세월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서 이 나이만큼 왔으면 그래도 조금은 인생이 쉬워질 것 같은데…. 정말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저도 그림속의 한 사람이 되어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림의 제목은 선술집 내부 (Interior of a tavern) 입니다.

그림에 나오는 아저씨들은 모두 8 명인데 맨 앞쪽 아저씨의 쓸쓸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뒤에 5 명중의 한 사람이 지금 막 담뱃대 위로 불을 부치고 있습니다. 창 밖 시간은 아직 해가 긴데 선술집에 있는 이유가 일을 마친 건지 아니면 일이 없어 시간을 보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이 없든지 하루 일을 마쳤든지 앞의 아저씨는 넋을 잃은 듯합니다. 담뱃불은 꺼졌고 놓인 술잔의 반은 마신 후 인지 마시기 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굽어진 등과 탁자위에 놓은 팔, 그리고 두꺼운 그의 옷, 햇살에 그을린 얼굴이 유난히 붉게 보입니다.

화가가 그린 이분들을 매일 만나고 삽니다. 담배 한대를 물고 서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순대국물과 함께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신의주 국밥집에서도,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교우들 등에서 저 그림속의 등들을 봅니다. 은혜가 없다면 아무 소망이 없을텐데 그래도 은혜가 있기에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김홍연 목사 「디사이플 내비게이션」 출간

동문 김홍연 목사 (43 회) 가 「디사이플 내비게이션」 을 발간하였다. 김 목사는 미국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시온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현대의 삶 속에 분주히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약해지고 주님이 기뻐할 제자다운 신앙생활과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 책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삶의 고난과 상처를 감싸고 위로해 주며 성경적 방향에 함께 나서도록 온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나침반이요 안내서이다. 유학생활과 이민 목회의 고단함 등을 말씀 안에서 자신만의 의지로 빚고 발화해 낸 저자의 온유함이 더해져 독자의 시선은 명확해진다.

「디사이플 내비게이션」 / 김홍연 / CLC / 247p / 12,000 원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헌금자 여러분께 감사하며

엘리사가 물에 빠트린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기적(왕하 6:1-7)을 설명하는 매튜 헨리의 주석은 한 소규모 신학대학의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요단 강변에 있던 이 초라한 신학교에 학생들이 늘어나자 교실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자재를 구할 형편도 못되어 근처 나무를 잘라 통나무교실을 세우려던 것 같습니다. 장비는 빌려 왔고 학생들은 동원되어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대학의 밀알훈련 같이 학생들은 기쁘게 노동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튜 헨리는 그들은 가난했지만 부지런하였고 고통을 견디어 내는 제자들이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사가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했고 엘리사는 흔쾌히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걸 사제동행이라고 하나요. 그러던 중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 제자가 나무를 찍다가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쇠는 물에 가라앉는다는 자연의 법칙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가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자 쇠도끼는 물에 뜹니다.

비대면 강의가 계속 되자 각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총학에서도 학교에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실망하면서도 이해한다고 했는데 학교에선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코로나 19 특별장학금」을 마련해 볼께요"라고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쇠도끼는 물에 뜬다'를 믿고 한 약속입니다. 그 후 모든 일은 거꾸로 진행 되었습니다. 장학금 지원자부터 받고 거기에 맞게 모금하자는 순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바구니가 넘쳐 1 차에 이어 더 들어온 헌금으로 2 차까지 모집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물에 뜬 쇠도끼'가 아니겠습니까?

헌금 해 주신 국내외의 여러 교회와 개인 헌금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직원 컬럼
민찬양 목사 (신앙훈련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컵

우리나라에 코로나 19 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 8 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실 올해의 대부분을 코로나 19 와 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도 코로나 19 는 상당히 큰 도전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예배와 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돼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이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사는 동네에는 스마트폰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휴대용 라디오를 구매하여 직접 녹음한 말씀과 찬양을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어르신께서 유리컵에 우유를 가득 담아 저에게 마시라며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얼른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컵은 우유를 마시기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금박으로 된 디자인은 촌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주시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전 경비 일을 할 때 주워 놓았던 건데,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처음으로 꺼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컵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컵을 젊은 목사 한 사람 대접하려고 처음 꺼냈던 겁니다. 저 역시 어르신의 깊은 마음에 고개 숙이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쁜 잔에 우유를 마시기는 처음입니다." 더 이상 그 컵은 촌스럽거나 어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컵이었고, 가장 맛있는 우유였습니다.

진심을 담은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으로 섬긴다는 것의 의미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예민한 시기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컵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과 이웃에게 전해 드리는 성서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수 컬럼
김성호 교수(사회복지학과)

It's not funny!

얼마 전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시각 장애인분들께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며 개선을 요청해오셨다"라고 하며 '깜깜이 감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깜깜이'는 국어사전에도 등록되어 있는데 쓰면 안 되는 표현인가? 이 외에도 '살색, 절름발이 정책, 벙어리장갑, 장애우, 혼혈아, 탈북민, 불법체류자' 등 비슷한 사례는 많다.

이쯤 되면 'PC 충'이란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뭐라고? PC 방이 아니고 PC 충? 여기서 PC 는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뜻하는 'Politically Correct'의 약자로, 용어의 사용 때 인종 · 민족 · 종교 · 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PC 운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일방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정한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외국에서는 PC 를 강조하는 사람을 Social Justice Warrior 혹은 PC Police 라고 냉소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PC 충' 혹은 '프로불편러'라고 부른다. 이 외에도 PC 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어쩌란 말인가? 나는 PC 를 '프로불편러'라고 비꼬는 현상에 주목한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지적질)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무시해선 안 될 비판이다. '알면서' 쓰는 의도적인 비하, 조롱, 혐오가 아닌 이상 누군가를 불편하지 않게 'PC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PC 를 '불편'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혹은 '무심코', 더 나아가서는 분위기를 좋게 하거나 상대방을 위한다고 쓰는 단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불편'을 넘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유학 초기 시절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던 영어 표현이 있다. 누군가에게 불편한 말을 들으면 정색을 하며 "It's not funny" 라는 표현을 한다. 즉, 말하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단지 '노잼'이 아니라 불쾌하고 싫다는 의미이다.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문구가 떠오른다.

외래교수 컬럼
정나나(어린이집 운영관리)

옛이야기 아닌 살아 숨 쉬는 성경의 가치

"옛날 옛날에 ..." 나는 밤마다 구수한 이야기꾼이 되어 자녀들을 설레는 동화의 세계로 초대한다. 전승 동화에는 도깨비, 호랑이, 까치, 사슴, 뱀, 나무꾼, 선녀 등 세상에 존재하거나 혹은 없는 다양한 캐릭터를 등장시켜 아이들 머릿속을 상상으로 채우고 흥분시킨다. 큰 아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키득거리거나 놀라는 표정을 보이다가 어느덧 잠이 든다. 아이들은 글자를 배우기 전, 아니 배우지 않고도 이야기와 그림을 귀와 눈으로 상상해가며 듣는다.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민족 정서와 가치관, 교훈을 익히게 된다. '착하고 효도해야 한다',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렇듯 전승동화(옛날이야기)에서 배운 '선한 교훈과 가치'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는 현장 교사가 되고, 부모가 되어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그림책을 수시로 읽어줄 것이다. 이는 그림책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많은 갈등과 과제를 해결하는데 위로와 격려가 되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들은 나이 들수록 이와 같은 선한 가치를 아쉽게도 상실해가고 있다. 위로와 격려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닳는다'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성경(딤후 3:15).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배우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있을까? 주님의 대 명령을 받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성경을 멀리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점점 닳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라는 이야기! 하나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한 형제라는 이야기! 그 소중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듣긴 들어도 자꾸만 어릴 적 그림책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려는 게 이유일까…?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장막집

얼마 전 미국에서 교제하던 미국 동부와 서부지역 목사님들과 오랜만에 화상으로 재회를 했습니다. 저는 아침이고 그 분들은 늦은 저녁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코로나 사태에서 겪은 어려움이 주제가 됐습니다. 대면예배가 열렸는데 일천 명 들어갈 본당에 성도들만 드문드문 앉아, 전체가 마치 텅 빈 공간 같았다며 감정과 소회를 애기하였습니다.

한 분이 장례 치렀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양로원 계신 분이 소천 했는데, 자신도 놀란 사실은 코로나의 감염 때문인지 시신을 다 랩으로 싸서 모셨다는 겁니다. 장례식을 많이 경험했지만 랩으로 싸매 미이라처럼 된 시신과 외부인을 초대 못하고 최소한의 가족만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장례식은 입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낯설지만 돌아가신 고인의 얼굴에 화장을 합니다. 평소 고인이 좋아하던 옷을 입히고 관 뚜껑까지도 열어 놓습니다.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고인 앞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늘어선 가족을 위로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저도 경험으로 아는데 이 순서가 장례식에서 조문객이나 유족에게 큰 위로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런 순서마저 생략시키고 마지막인 화장터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장례를 마치게 한 겁니다. "목사님, 미국은 한국보다 더 심각하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다들 불안해서 조심하고 있어요" 화상대화 때문인지 하루 종일 미국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 집 선룸(sunroom)에 앉아 있으면 제 눈의 시선에 뒷마당의 경사진 부분과 마당 뒤에 친 펜스가 약간의 공간을 두고 겹칩니다. 그 겹친 긴 공간 사이로 새들이 날아와 다니는데 그들의 움직임이 한 폭의 그림입니다. 금잔디 사이에 부리를 대는 놈, 입에 문 벌레를 옆으로 흔드는 놈, 막 날아가거나 내려서는 놈, 새들이 놀다 간 공간은 밤에 더 황홀합니다. 반딧불들이 펜스 위로 족히 15 층은 넘을 나무로 빽빽한 그곳에서 가지와 잎들이 부는 바람결 따라 노래하고 춤까지 추는 게 몸치인 제 몸마저 흔들도록 만들어 줍니다. 가을에 낙엽 치우는 일이 힘들지만 부는 바람 사이로 나무 잎들의 소리가 여느 오케스트라 못 지 않습니다. 나무소리가 멈추는 날이면 달빛이 내려와 앉는데 낮에 보던 잔디가 아닙니다. 벗은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로 잔디가 올라오고 몸을 받쳐주는 잔디의 부드러움이 지친 몸을 받쳐주던 침대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새들이 놀다간 자리와 반딧불 춤추는 그 뒷마당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이제 미국 생각이 나는 걸 보니 제가 이곳 생활에 많이 적응한 것 같습니다. 하긴 여기도 저기도 내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잠시 머물다 갈 장막집일 뿐이지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후 5:4)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75

딱 지 _ 이준관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칠칠치 못한 나는 걸핏하면 넘어져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다.
그 흉물 같은 딱지가 보기 싫어
손톱으로 득득 긁어 떼어 내려고 하면
아버지는 그때마다 말씀하셨다.
딱지를 떼어 내지 말아라 그래야 낫는다.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까만 고약 같은 딱지가 떨어지고
딱정벌레 날개처럼 하얀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
지금도 칠칠치 못한 나는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며
마음에 딱지를 달고 다닌다.
그때마다 그 딱지에 아버지 말씀이
얹혀진다.
딱지를 떼지 말아라 딱지가 새살을 키운다.

http://cafe.daum.net/we9988

문득, 여기저기 흉터를 바라본다. 다리에 남아 있는 상처는 옷에 가려지지만, 손에 남아 있는 상처는 훈장같이 두드러진다. 검버섯처럼 거뭇한 흉터의 대부분은 달구어진 팬에 스치거나 기름이 튀어 생긴 화상들로 엄마표 흔적이다. 때론 거친 손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것이 대수랴! 그 모든 상처는 가족사랑인 것을!

마음의 상처를 매만져 본다. 너무 깊어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던 세월, 그 시간을 추억인 양 되돌아보게 해주는 덤덤한 흉터는 승리이다. 때론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지만, 그것이 대수랴! 덕분에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낼 수 있으니!

오늘 우리가,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딱지를 떼지 말아라 딱지가 새살을 키운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 그 깊은 사랑의 울림이 있기 때문!

대학 어린이집

▲ 영유아들이 설치된 개원 20 주년 축하용 케이크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개원 20주년 감사예배

지난 9 월 1 일 대학어린이집이 개원 20 주년의 뜻 깊은 날을 맞아 민찬양 목사의 축하 메시지와 말씀으로 감사예배를 드렸다. 영유아들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여했다. 예배 후 어린이집의 풍경, 놀이모습, '우리 선생님' 주제로 만든 미술작품전시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도와 봉사로 도움을 준 수많은 분들께 감사와 함께 기념품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직원들이 만든 축하 및 감사 메시지, 작품전시회와 추억의 명장면 등도 20 주년을 풍성히 채워주었다. 뜻 깊은 영상은 스마트 알림장으로 부모님께 전해 함께 기쁨을 맛보았다.

다함께 현장에서 축하해주지 못했지만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스무 번째 생일이 됐다. [**사랑반 안나영 교사**]

월계종합 사회복지관

▲ 직원들이 제 3 차 미션 · 비전 선포식에서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3차 미션 · 비전 선포식

월계복지관은 17 일 제 3 차 미션 ·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선포한 3 차 미션 · 비전은 월계복지관이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으로 지역민과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이루려는 것이다. 선포를 통해 ① 주민이 신뢰하는 파트너 복지관 ②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 복지관을 지향하고 있다. 지난 2018 년 인재상 수립에 이은 비전 선포로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복지관 수요욕구 등을 묻는 설문조사도 가졌다. 선포식에 앞서 월계 직원들은 전략 회의와 리더아카데미에 참석, 정체성 확립과 창의적인 직장인의 자세 등을 공유하였다. 미션 · 비전 수립의 전 과정은 학회지 등재와 사례집으로 발간 및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월계복지관은 주민 만족을 위해 더욱 힘쓰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홍유민 사회복지사**]

꿈빛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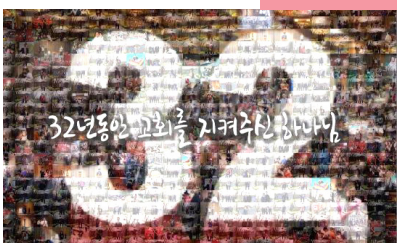
▲ 영유아들이 텃밭에 모종을 조심스럽게 심고 있다.

가을모종 심기

지난 11 일 꿈빛어린이집 영유아들은 어린이집 텃밭에 가을상추와 부추모종을 심었다. 모종심기는 유아들에게 자연친화적 정서를 높여주고 식물에 대한 관찰력 등을 키워준다.

모종 심기에 앞서 적합한 식물종류에 대해 유아들과 논의과정을 거친 후 텃밭에 직접 심고 물을 흠뻑 뿌려주는 등 정성을 쏟았다. 모종을 심는 과정에서 흙의 역할과 촉감에 대해 느끼며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에서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다. 영유아들은 지난 4 월에도 텃밭에 토마토와 오이, 고추를 심고 물을 주며 자연의 놀라운 성장능력을 관찰하고 경험했었다. 가을 모종이 잘 자라는 과정을 탐색하면서 텃밭 채소를 이용한 여러 요리 활동시간도 진행해 볼 예정이다. [**민들레반 탁지혜 교사**]

성서 대학교회



▲ 성서대학교회 설립 32 주년 축하 기념 포스터

교회창립 32 주년

성서대학교회가 지난 9 월 13 일 교회 창립 32 주년을 맞았다. 뜻 깊은 교회창립주일, 성도 모두가 함께 모여서 축하와 기쁨을 나눠야 했지만 코로나 19 로 만남을 갖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이 교회를 지키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 드린다. 앞으로 성서대학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 모두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 해 주시길 바란다.

이에 앞서서 성서대학교회는 지난 9 월 6 일 한국성서선교회 주일로 지키며, 성서선교회와 성서선교회 산하 35 개의 교회 부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오종철 목사**]

상계백병원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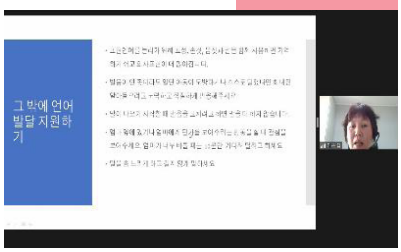
▲ 식탁에 설치한 위생용 플라스틱 가림판

코로나 19 – 철저한 방역

상계백병원어린이집은 코로나 19 정부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연장기간이지만 본원 특성상 구성원의 80% 에 대해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위생 플라스틱 가림판 설치로 거리를 둔 채 식사가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이밖에도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마스크 보관 파우치 구비, 유아들의 체온 수시 확인, 방역 업체를 통한 소독 및 손 씻기와 기침예절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등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정부 매뉴얼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휴원 기간이지만 아이 맡아줄 사람이 없다보니 어린이집에 보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철저한 방역생활을 이행해 줘 오히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 며 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나타냈다. [**푸른반 이예은 교사**]

노원육아 종합지원센터



▲ 부모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자료화면

'부모교육' 프로그램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가족의 역량을 강화해 주기 위해 지난 9 월 8 일, 16 일, 23 일 사흘간 학부모 45 명에게 부모교육을, 15 일, 21 일, 28 일에는 학부모 24 명 대상으로 부모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영유아 발달 지원 및 양육방법과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함께 하는 공동육아의 분위기를 확산키 위해 진행되었다. 교육은 우리아이 발달 모니터링, 우리아이 언어발달지원, 우리아이 사회성 발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양육 기술을 코칭 받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을 마친 학부모들은 양육 코칭 교육에 대해 한 가지씩 실천하겠다는 긍정적 의견을 확인해 주었다. 부모 멘토링 프로젝트가 행복한 공동육아 문화의 조성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선화 특수교사**]

상계5동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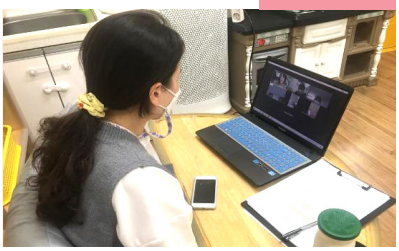
▲ 각 가정에 배달된 추석명절 놀이셋트

추석 관련 만들기 가정연계 배부

상계 5 동어린이집은 지난 24 일 추석 명절에 맞춰 가정보육과 긴급보육을 이용 중인 영유아 가정에 추석 관련 만들기 활동 셋트를 보내드렸다. 추석 관련 만들기란 우리나라 전통 탈과 북 만들기 그리고 투호 놀이 만들기 총 3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보육은 우편배송을, 긴급보육에는 영유아편을 이용했다. 물품을 받아 본 학부모들은 추석명절놀이셋트를 이용해 매우 즐겁게 놀 수 있어 좋았다며 배려해 준 어린이집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현재 정부의 휴원 조치로 모든 영유아가 다 등원하지 못하는데 전체 영유아의 70% 가 긴급 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정과 연계된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예쁜꽃잎반 조은경 교사**]

늘사랑 어린이집



▲ 디딤돌 공동체 연구용 '다이어트' 자료를 학습 중인 교사

디딤돌공동체 '다이어트'

늘사랑어린이집은 8 월부터 한국성서대학어린이집, 상계 5 동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상계백병원어린이집과 생태친화 보육인 더불어 디딤돌공동체 연구모임 '다이어트' 를 진행하고 있다. 다이어트란 '영유아들의 놀이 활동 시 교사들의 개입을 줄이자' 이며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한 유아 및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담고 있다. 서울시 생태친화 보육사업인 '다이어트' 는 영유아 보육환경을 자연 · 놀이 · 아이 중심의 생태친화형으로 개선하도록 지원되는 사업이다.

연구모임은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과 참고도서, 다양한 운영 사례 토론 및 내용 공유로 아이디어를 얻는 등 교직원의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11 월까지 진행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영유아의 흥미 존중 등 생태친화 보육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나는반 조유진 교사**]

충무 어린이집

▲ 유아들이 완성한 중국 전통간식 탕후루

맛있는 세계여행

지난 21 일 충무어린이집은 중구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맛 여행의 일환인 '아름이, 다운이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세계여행' 요리 실습에 참여했다.

유아들은 요리실습에 참여하기 전,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두르며 의젓한 요리사 자세로 변신 후 중국 전통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탕후루' 만들기에 나섰다. 준비된 청포도, 방울토마토, 키위에 꿀을 바르고 한 개씩 꼬치에 조심스럽게 끼워 그릇 위에 놓았다. 자신이 정성 들여 만든 탕후루와 친구가 만든 탕후루를 모양과 입맛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 유아들은 '달다', '맛있다', '키가 달라요' 등으로 과일의 맛과 색상을 전하며 이웃나라의 식문화를 경험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김지현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20년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1880만원(운영)	박선(이사)	120만원(장학)
김조자(간호학 교수)	1000만원(장학)	강규성(부총장)	115만원(장학)
강우정.강진(총장)	610만원(운영)	한진호(컴퓨터소프트웨어학 교수)	113만원(장학)
서울광염교회(조현삼 목사)	500만원(장학)	대광교회(서해원 목사)	110만원(장학)
(재)농촌청소년미래재단	375만원(장학)	조혜경(영유아보육학 교수)	110만원(장학)
한국장학재단	250만원(장학)	최은희(간호학 교수)	110만원(장학)
원영희(사회복지학 교수)	210만원(장학)	유정선(성서학 교수)	110만원(장학)
청평교회(박사준 목사)	210만원(장학)	고미숙(간호학 교수)	110만원(장학)
중앙성서교회(현희철 목사)	200만원(장학)	김현동(평생교육원)	105만원(장학)
길용희	200만원(장학)	차인숙	105만원(장학)
한국성서대학교어린이집	200만원(장학)	권경만(기획실)	102만원(장학)
조윤경(영유아보육학 교수)	170만원(장학)	김원선(염창중앙교회)	100만원(장학)
장현진(영유아보육학 교수)	170만원(장학)	평안교회(황연호 목사)	100만원(장학)
장혜진	142만원(장학)	교수부	100만원(장학)
서문교회(이성화 목사)	120만원(장학)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정휘진(법인사무국)	120만원(장학)	홍설자(이사)	10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0.5구좌 김시내
1구좌 강은해 김선태 김진숙 문정혜 박아론 연현숙 윤정숙 장익심 정명갑 정은희 최성자 황승호
2구좌 이아름

재학생 및 가족

3구좌 김은선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김세미 홍성진
2구좌 문지예 민경은 정순애
3구좌 신재윤 양희정
4구좌 김덕원
5구좌 권순범 김성호 김은영 신지수 유미나 이은광
6구좌 김덕현
10구좌 강정원 김도경 이복남 조현진 최선희

성서대학교회

5구좌 전명진

성서선교회

5구좌 일동성서교회

장자교회

5구좌 장작교회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샛별 민이삭 정다운
1만원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은아 강재현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예은 권유철 권정인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기상혁 김가영 김가희 김경수 김다예 김도훈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아 김민정 김민정 김믿음 김병렬 김보희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순화 김승현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유진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례 김정희 김지선 김 진 김진영 김진하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태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도 만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상수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연서 박영근 박윤복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해정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유미 서 융 서정민 서지혜 서희영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송민규 송성은 송순덕 송영자 송원복 송유지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세천 오은희 오찬미 오채엽 오흥복 용아름 우승연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보아 유소담 유수정 유양숙 유영진 유주홍 윤솔이 윤영원 윤정숙 윤정숙 윤지준 윤현묵 윤혜자 이광석 이근중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은영 이정모 이정숙 이정익 이정호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선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이환희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순호 장윤국 장익봉 장희남 전다현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선도 정성희 정영교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희영 조경애 조믿음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화 조태환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지유정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선경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슬 최인호 최종운 최준혜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선화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성팡 한현창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고난홍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기옥 김다솔 김미향 김복녀 김선근 김성훈 김수진 김순녀 김순덕 김연정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아 김은하 김일한 김재원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재송 백연옥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송인성 신정섭 신정화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순희 유의숙 윤광길 이구영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승환 이아름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임수경 임은희 임지현 장재경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하영 최상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탁윤석 하지혜 홍혜주 황선명 황보혜영
3만원 강수진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동교 김민주 김석환 김세련 김우선 김종숙 김주현 김지애 김태영 김현아 나예원 남지원 문순일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배예진 서명주 서성숙 성인선 신연정 신화영 양연선 양혜영 오유경

기부자 명단

이길순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우진 이재국 이주연
이지연 이현지 이혜린 임유림
장영훈 장혜란 전다정 전영이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조은경
최광희 최소린 최양서 최흥식
홍석화 황영숙

4만원 김연주 박주은 신은진

5만원 강경옥 길소윤 김기국 김연진
김종남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송복순 안민혜 안선례
양원석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장효정 조유진 천유림 최송희
최종건 하승훈 허성희 홍현숙

6만원 권민선 정동주

8만원 임연식

10만원 김장교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양연주 임현필 장명헌

11만원 유선미

20만원 김남웅

31만원 정인철

32만원 성낙표

33만원 이윤성

100만원 김원선/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5천원 이은지 황인아

1만원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기병문
김선경 김양순 김요셉 김은이
김혜미 류한나 박기영 박대종
박민희 박재숙 선유정 송은라
신연정 신영옥 안양희 윤효심
이광승 이나라 이동기 이성란
이성령 이혜진 임동현 임동화
전계화 정창금금

2만원 강세윤 김형태 박혜숙 서성식
엄미자 이마리 이영림 전명자
전옥순 최혜진 홍은선

3만원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박가을
박민주 박인순 박재완 배정숙
안태유 이종권 조대의

4만원 박지성

5만원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이재현
이지은 전영준 정미영

6만원 최하은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구자람 권관희 김다윗
김미영 김병수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영직 김지성 김지현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민경은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서의영 안수자 양승원
윤경민 윤명섭 윤혜진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민 이지희
임수아 장경순 장원경 장혜지
전광선 전귀선 정보미 정진주
조아라 조철남 조형섭 최미영
하희수 허윤민 황찬범
요시다고조

1만5천원 정지용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봉재 김세원
김유진 김장호 박태용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상일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정은상
최난영 최지연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권오섭 김미숙 김성호 김은영
김창현 박성범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유다운 이소연
이호섭 전영호

4만7천원 강지원 강지홍 강지훈

5만원 권순범 김덕현 김원빈 안미란
유미나 이광삼 이정희 장정순
최사랑 한재희

5만8천원 강영숙

6만원 문지예 이성아 임환석

9만원 민찬양 박인혁

10만원 김도경 김성경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문무열 박성환 신금주 안정선
양혜경 이민규 이은주 장성희
정상열 정순례 조현진 최육열
현우석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2만원 김웅기

13만원 곽규상 김중완 유수연

15만원 김은호 김희수 신지수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이은광 정해덕 최영태

23만원 강일석

25만원 임지영

30만원 김형미 오은주 최선희

40만원 이소정 장인순

50만원 박태수 이강동

59만원 강일아

60만원 강정원

100만원 홍설자

102만원 권경만

105만원 김현동

110만원 고미숙 유정선 조혜경 최은희

113만원 한진호

115만원 강규성

120만원 박 선 정휘진

170만원 장현진 조윤경

210만원 원영희

650만원 강우정.강 진

1000만원 김조자

부설기관

1만원 김령오 김수진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문유나 박제하 오윤아
이다솜 이유진 임재택 차도영
최선영 허성보

2만원 문선희 장윤정 전안나

3만원 강혜진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김은솔 김현애 박미애 변송이
송애솔 위소진 이선정 이효빈
임지혜 탁지혜 한송이 호한나

4만원 박미선

5만원 박연희 서영숙 신영자 여미희
이지연

6만원 장나혜

10만원 강진아 권정아 이인경 장수진
조지선 지주나

12만원 홍옥주

13만원 유정현

15만원 안미희 차 건

20만원 오동준

45만원 김신덕

95만원 김화영

142만원 장혜진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김영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2만원 곽성국.장은경

3만원 장석원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채용문

2만원 오활란

성서대학교회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1만8천원 김겸일 김다혜 김덕현 김동준
김미선 김병철 김상은 김승환
김신덕 김윤선 김정숙 김주혜
김지윤 김진철 김현광 김혜련
김희현 남지영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주형 박천순 박태수
방미경 백순옥 서 훈 송인희
송인희 안영숙 양천식 양태환
오종철 용정자 이관영 이길우
이노선 이대우 이소정 이승림
이영희 이정자 장인순 장홍림
전옥순 정나영 정무실 정신희
조건희 조영희 조정선 조준희
조지선 조현진 최인숙 한성실
허진순 이에스더

2만7천원 김주아 김주아 유상호

3만6천원 김순옥 김순옥 김인자 박선하
박성환 박은유 오은주 유정선
유중엽 이경신 전광심 정명수
정선희 조성민 황서린

4만5천원 강유진 권경만 김미선 노봉환
유형창

5만4천원 김문은 김원태 김현석 송재철
이숙명 조혜경 최선희

9만원 강성훈 길요희 박세건 이은실
이정임 전명진 최정권 한진호

25만원 홍재우

27만원 김웅기

60만원 전명진

200만원 길용희

1880만원 성서대학교회

성서선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김초롱
오성군 이승학 이태학 정혜란
진재호 최영란 최영숙 한금순
열매맺는교회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우용식 이수병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금촌성서교회

3만원 권순호 김덕규 김옥자
동두천성서섬김교회
태광성서교회 푸른동산교회

5만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일동성서교회
중앙성서교회 권사회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송인숙 현희철
김윤규.신인자 다빛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24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200만원 중앙성서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정유광 홍성호

2만원 반요셉

이례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10만원 평화교회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일반

1만원 강소라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대석 김대성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범준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진영
김천수 노용현 노은경 류계현
류찬성 문해영 박미숙 박병훈
박영미 박영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소아름 송수용
심재순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유해연 유화실 이민우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임숙자 장명웅 정은영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한춘경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성래 김윤숙
김종환 서병준 서성원 우윤주
윤수현 윤준영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진성용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3만원 김미수 김종환 윤미선 장문석

4만3천원 박은영

5만원 강한성 김종무 서미혜 석지현
오계순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12만원 강승태

20만원 유광석.민경홍

30만원 박순정

50만원 예수마을교회

105만원 차인숙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
김포예수사랑교회/늘푸른교회
/마음교회/맘키즈푸드/목양교
회/이음기업/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동신자
원/성복중앙교회/아인안경원/
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새샘교회/우리교
회/의정부좋은나무교회/한길
교회(김오권)

3만5천원 도서관

4만원 주님의교회/플랜팅시즈

5만원 다드림교회/상일교회/예일에
드컬/천성교회/평안교회(송파)
/하늘누림교회/행전교회/향기
나무

10만원 (주)바다나라/(주)이레E&C이레
디자인/가성교회/구리성광교
회/구리중앙교회/두암산업(주)
/만나교회/상록교회/생명샘교
회(성주)/오감발달연구소/철원
제일교회

13만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제트전기

30만원 한민제일교회

60만원 동서환경(주)/염창중앙교회

65만원 미사목민교회

100만원 교수부/평안교회

110만원 대광교회

200만원 한국성서대학교어린이집

210만원 청평교회

250만원 한국장학재단

375만원 (재)농촌청소년미래재단

500만원 서울광염교회

소계(20200821~20200920)
118,129,398
누계(20200301~20200920)
543,166,821